



화분매개용 꿀벌(봉군) 판매 시 주의사항



하우스 내 꿀벌에 쓰이지 않도록 당부

● 최근 충남 논산지역 딸기 하우스에서 수확작업을 하던 할머니 2명이 수정용 꿀벌에 쓰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할머니들이 수정용 벌통을 잘못 건드려 벌에 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친환경적 딸기 생산을 위한 꿀벌 방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꿀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농민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도 늘어가고 있다.

농가에 화분매개용 꿀벌을 판매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딸기하우스 벌통은 2~3월이면 먹이가 부족하여 사나워짐으로 소문급이기를 활용하여 사양액을 5일 간격으로 아침에 급여하도록 당부
- ◆ 벌통의 위치는 하우스 한쪽에 지면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수평으로 설치하도록 당부.
- ◆ 벌통에 충격을 가하면 벌이 공격하므로 벌통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당부.
- ◆ 하우스에 들어갈 때 수건이나 모자 등 면포를 착용하도록 당부.
- ◆ 꿀벌은 술, 향수, 화장품 등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에 대하여 당부.(비누,삼푸냄새)
- ◆ 벌이 공격 시 뛰거나, 몸을 흔들지 않도록 당부.
- ◆ 봉군을 판매한 양봉농가로부터 1달에 1~2회 점검 할 것.
- ◆ 딸기하우스 내에 너무 높게 벌통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
- ◆ 벌통의 뚜껑은 잘 열리지 않도록 끈으로 가운데를 묶어 주도록 당부.
- ◆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 출입을 금하도록 당부.